

K-컬처와 자연의 융합, 영국에서 한국 정원 전시 개막 주영한국문화원 특별전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 주영한국문화원-국가유산청 공동 개최
-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 정밀 데이터 기반 몰입형 전시로 해외 첫 공개
K-디지털 소프트파워와 자연의 융합, 미래형 전시로 확장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 ‘문화원’)은 국가유산청과 공동으로 특별전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9월 11일-11월 14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전통조경과 정원문화를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첫 전시로, 지난 9월 11일 성황리에 개막하여 영국 현지의 큰 관심을 모았다.
- 이번 전시는 ‘정원의 나라’ 영국에서 한국 전통정원이 지닌 미학을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통해 다채롭게 선보이는 첫 몰입형 기획전이다. 한국 전통 정원미학의 핵심인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영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영국 사회가 가진 높은 정원 관심도에 맞추어, 한국 정원의 조형성과 미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정원은 자연과 인간, 문화를 잇는 상징입니다. 정원의 나라 영국에서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정원을 통해 공유되는 감성은 자연·인간·기술이 공진화하는 한국미학의 미래이며, 이를 함께한 국가유산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 허민 국가유산청 청장은 “이번 전시가 한국 전통정원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영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 양국 정원문화가 간직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의 한층 깊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이번 전시 개최를 축하하였다.

□ 이번 전시는 ‘왕과 선비의 안식처’, ‘차경으로 즐기는 찰나’ 등 한국 전통정원의 다양한 특성과 철학을 주제로 한다. 국가유산청이 보유한 전통조경 정밀실측자료, 방지원도(方池圓島) 이미지 등이 활용되며, 일부 공간에서는 현대 작가들의 참여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예술적 해석도 함께 제시된다.

○ 전시 중앙은 왕실 정원을 대표하는 창덕궁 후원의 사계절 변화를 담은 영상과 선비의 정원을 상징하는 담양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대형 미디어 프로젝션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 이 영상들은 국가유산청의 고해상도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정원의 공간 구성과 식생, 계절감,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미의식을 생생하게 구현한다.

○ 또한 한국 전통 정원의 핵심 개념인 차경(借景), ‘자연의 경관을 정원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시각적 연출 방식’은 본 전시의 중심적 시각 경험으로 제시된다. 정자 안에 앉거나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선 구조를 모티프로, 관람객은 스크린을 경계 삼아 풍경을 감상하는 ‘프레임’의 감각을 체험하게 되며, 이는 곧 자연과 인간, 안과 밖의 경계를 사유하게 하는 철학적 몰입으로 확장된다.

□ 영국 전시는 한국 전시에 두 가지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전통의 재현을 넘어, 정원이라는 공간이 지닌 인문적 상상력과 국제적 대화를 위한 열린 장소로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 ‘로비 프로젝트’는 문화원에 들어선 로비 공간에서 마치 한국 정원의 정자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며 정원을 감상하는 듯한 미적경험을 제공한다. 대형 모니터를 통해 송출되는 한국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과

정원의 영상들을 국악 선율과 함께 감상하며 영국에서 한국으로 타임슬립을 한 듯한 몰입형 경험을 유도한다.

- ‘두 정원 사이에서’ 부분은 영국 시민들의 한국 정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북돋는다. 영국 전시에서 한국 전통과 현대미술을 넘나드는 정원
과 예술, 문학의 교차점을 제시한다. 한국 정원 미학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미술과 융합한 △황지해 작가의 2023 첼시 플라워쇼 수상작
아카이브, △허경란 작가가 정원과 묘지라는 공간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상작을 전시한다. 문학과 다도와 관련하여 △
안선재 수사가 한국 다도문화를 소개하는 영문 번역서 *Korean Tea
Classics* △국립광주박물관이 제작한 다도 영상, 조경 및 정원 문화를
주제로 자료들을 함께 구성했다.

- 이번 전시는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과 미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해외 미술계에서는 생태, 자연을 미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흐름
이 있는 가운데 영국미술사학회(Association for Art History)가 주최
하는 2025 미술사 축제(Art History Festival)의 올해 테마인 예술과
자연(Art and Nature)에 맞추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어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 또한 이번 전시 개막식에는 가든 뮤지엄, 서펜타인 갤러리, 영국 도
서관, SOAS 런던 대학 등 다양한 현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
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가든 뮤지엄의 올리 화이트헤드 교육 프로그
램 담당자는 “정원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철학이 담
긴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라며 이번 전시를 감
상한 소회를 공유하였다.

- 올 10월 프리즈 런던 위크와 연계한 전시 투어 및 한국 차 시음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으로 이번 특별전은 영
국민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개요

붙임 2.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전경

담당 부서	주영국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44)020 7004 2600
		담당자	실무관	차재민 (+44)020 7004 2606



붙임1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개요

□ 전시개요

- (전시제목)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국문), 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영문)
- (일시/장소) ‘25.9.11.(목) ~ 11.14.(금) /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 개막행사: ‘25.9.11. (목) 18:00-20:00 / 주영한국문화원 로비
- (전시주제) 자연에 정원을 조성하여 이상향을 실현하고, 이를 향유하는 선조들의 정원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국제적으로 홍보.
 - 국가유산청 보유 전통조경 정밀실측자료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전시
 - 한국 전통정원 및 정원 미학의 국제적·문화적 맥락에 맞춘 사진, 영상, 디지털 작품 전시
- (전시구성) 한국의 전통정원 및 자연유산을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인트로	1부	2부	3부	4부
소제목	로비 프로젝트	왕과 선비의 안식처	차경으로 즐기는 찻나	한국의 산수지락	두 정원의 사이
주제	국가유산청의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정원을 소개. 문화원 내 다양한 행사들과 연계하여 한국 정원 이미지와 함께 차를 마시는 공간 마련.	별서정원의 아름다움과 왕의 안식처가 된 창덕궁 후원의 사계절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의 아름다움을 선보임.	주변의 경치를 끌어들이며 자연을 감상하는 한국의 전통 조경 경관 연출 기법으로, 마치 정자에 앉거나 서서 풍경을 바라보는 심미적 경험을 제공.	한국의 전통정원이 지닌 가치를 이어나가는 국가유산청의 다양한 노력과 한국의 자연 미감을 발견할 수 있는 영상 및 자료들을 소개.	한국과 영국, 과거와 현재를 넘어선 한국 조경 및 정원과 관련된 시각예술, 문학 작품 등 소개.
주요 전시물	국가유산청 영상 및 자료	1) 별서정원 2) 궁궐정원 3) 방지원도	차경 영상	국가유산청 영상	안선재 수사 번역본 <Korean Tea Classics>, 황지해, 허경란 작가 작품 외

붙임2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 전경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 전경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 전경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 전경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 개막식 전경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 축사 모습



허민 국가유산청 청장 축사 모습

[고화질 사진 링크](#)